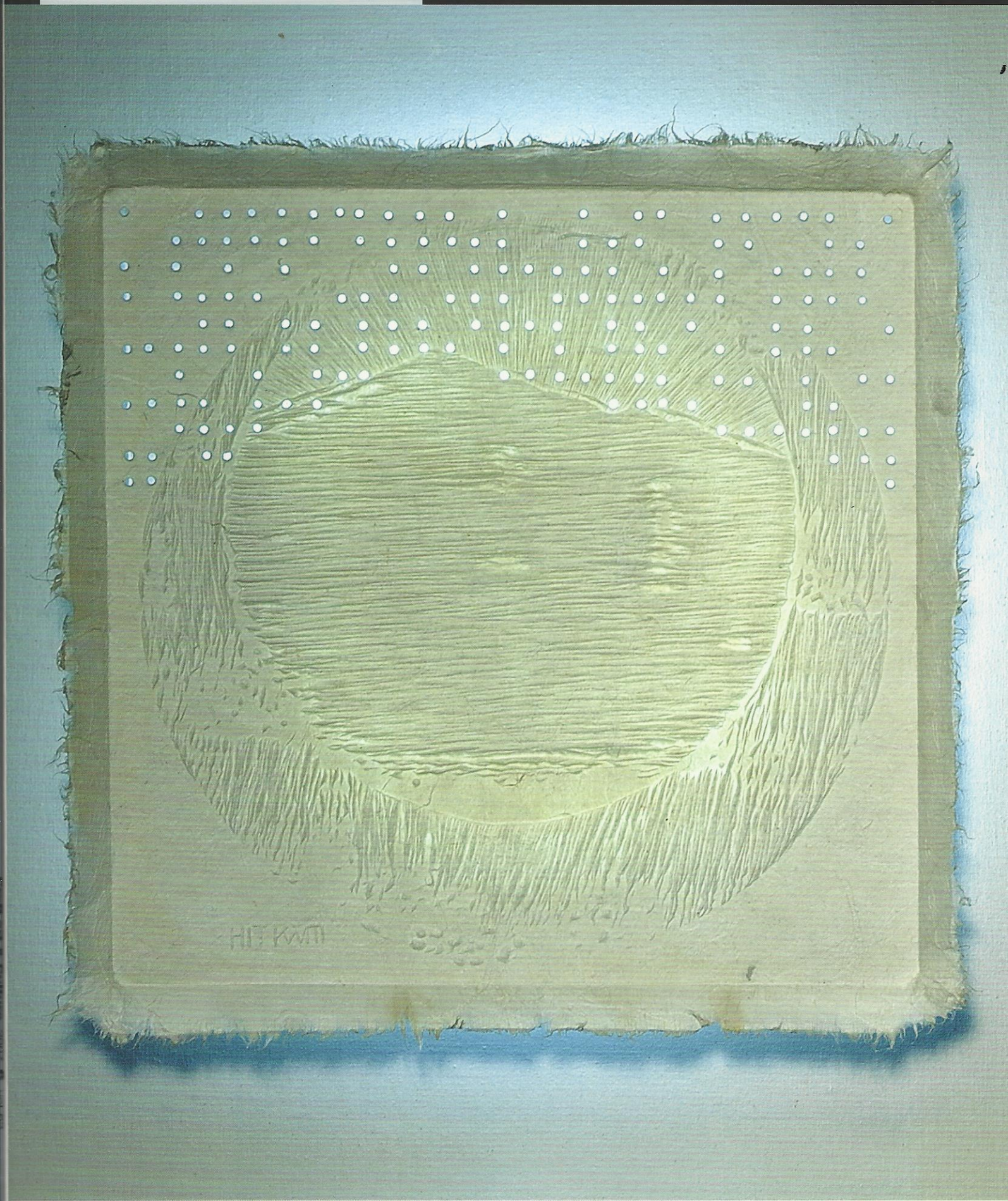
crart 2007 6 vol.62
월간 크라트 | Craft art & Culture 별책부록 전시가이드

특집 | 2007 제4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작가탐방 | '부분' 아닌 '전체', 이유 있는 변화! _ 금속공예가 **이승원**
젊은작가 | 이방인의 anxiety(불안정점)-오브제에 담긴 인간의 존재성과 희노애락 _ 조형작가 **심정은**
포커스 |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주관-한국공예명품 출시, 한국 공예계에 성공모델 제시



패티 우터스(Patty Wouters)의 시공간을 초월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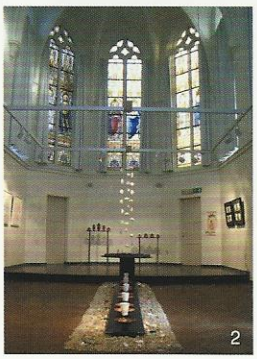
글 | 박성진 통인옥션갤러리 큐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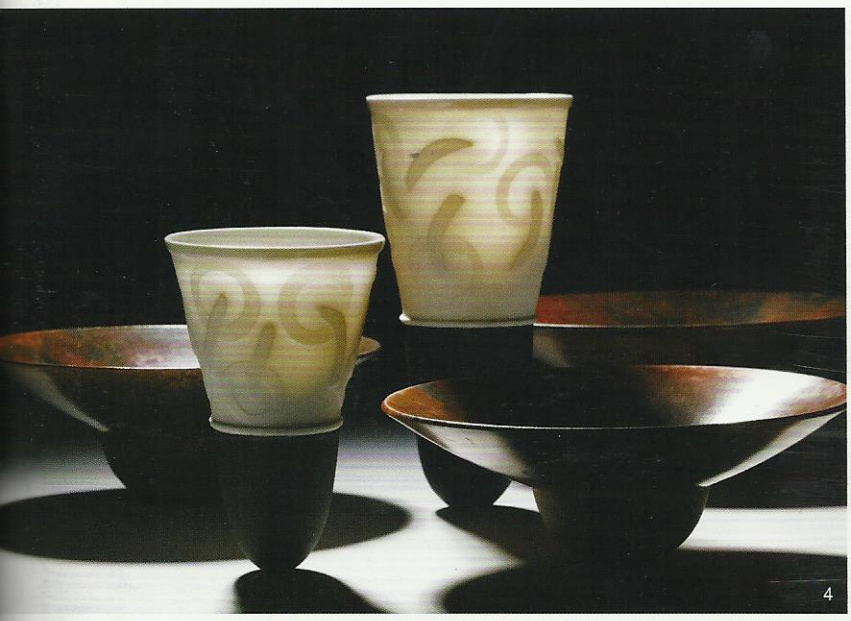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가장 흔한 움직임 중 하나는 끊임없는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일 것이다. 시시각각 갈라진 연속적 시간의 흐름처럼 크고 작은 문으로 갈라진 삶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관계와 소통을 갖는다. 통인옥션갤러리는 「2007 제4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와 더불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벨기에의 세계적인 현대도예작가 패티 우터스(Patty Wouters)의 작품들을 6월 4일까지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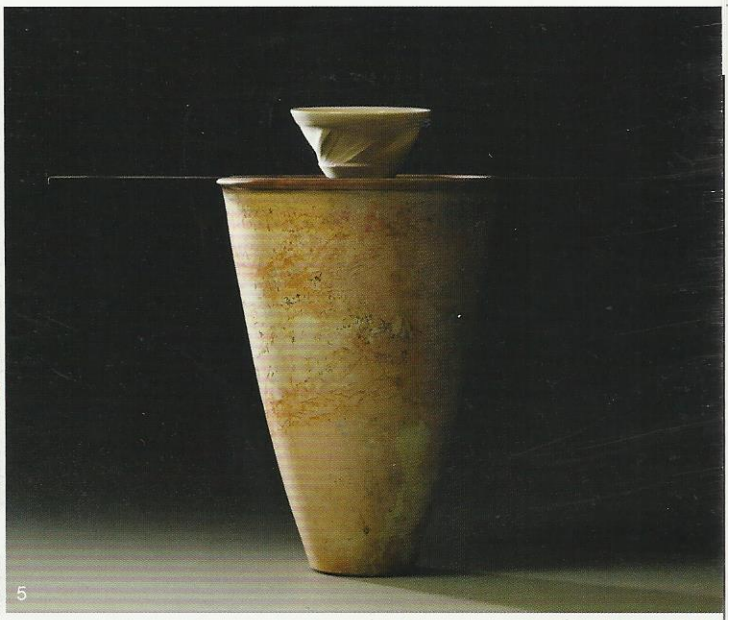
패티 우터스는 공예의 경계를 허물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자연과 인간, 사회와 세계의 관계를 탐구하고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한다. 그녀는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고대 토기들에 깊이 베어있는 고대문화의 종교적 의미와 일상의 세세한 부분들이 전 우주적인 정신을 발산한다고 믿고 이를 작품을 통해 표출 하고 있다.

벨기에 앤트웝 민속박물관(ethnographic museum of antwerp) 큐레이터 쟌 벤 알펜(Jan Van Alphen)은 우터스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 "도자는 예로부터 많은 의미와 상징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모성애와 여성미는 도예의 둥근 형태와 선 그리고 볼륨감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녀는 작품을 통해 어머니의 품으로 묘사되는 대지로의 초대를 서슴치 않는다. 우리는 초대된 그 곳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풍성해진 문화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가의 기법들은 우연히 발생한 조화로운 색상과 아직 그 자태를 완벽히 드러내지 않은 대리석의 편안함으로 작품의 형상을 자아낸다. 이제 흙의 물성과 자연을 닮은 세상의 조화를 꿈꾸는 작가와 작품의 형태는 하나가 된다. 그녀의 손에서 하나가 된 자연의 물질은 그 근원을 부인하지 않는 소박한 예술작품으로 다시 승화한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터스는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을 통해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공통된 이야기를 기하학적인 형태의 상징들을 통해 들려준다. 이러한 상징과 의미들은 마무리 작업에서 작품의 제목을 통해 구체화되어 모든 움직임과 행동 그리고 상호작용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정지된 것은 없으며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져 있다고 보는 작가의 철학을 통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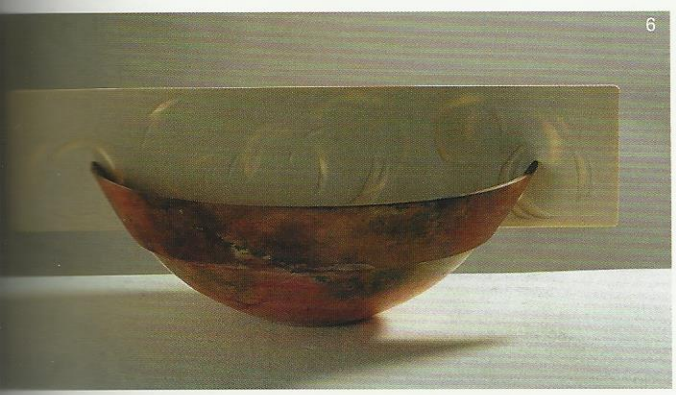




절제된 형태와 수평과 수직의 선들

작가의 용기의 기본 형태는 단순하다. 그 이유는 순수한 형태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강한 힘을 발산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작품에서 종종 등장하는 수평과 수직적인 선들은 몬드리안이나 칸딘스키와 같은 추상표현 작가들이 갈구했던 순수한 절대성과 보편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 패티 우터스는 이를 위해 여러가지 과정들을 거치는데 우선 원시적인 소성방법으로 가연성의 물질을 흙과 접촉시킨 후 연기와 재의 독특한 효과를 이용한다. 만지고, 고정시키고, 문지르고 부드럽게 하는 명상과도 같은 작가의 일련의 감각적인 과정을 거친 후 우주의 기본적인 물과 불과 흙의 결합은 단순한 형태에서 삼라만상을 드러낸다. 형태나 색깔에 있어서 미묘한 균형과 대조 그리고 절제된 형태와 흥미로운 엑센트들은 그녀가 바라본 세상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된다.

1 「fish fossils #1」 20×30㎝
2 전시장 전경
3 씨켈(Atelier Cirkel) 사진
4 「circles and lines」 10×12㎝, 30×20㎝
5 「on the edge」 15×30㎝
6 「moving circles」 30×12㎝(bowl), 30×12㎝(plate)



ARTIST STATEMENT

Ancient pots are important because of their historical value. From excavated pots and vessels archeologists have been able to deduce lots of details of the every day life and religious rituals of ancient cultures. All these ancient vessels are based on archetypal forms and radiate a universal spirit. It is this kind of spirit I want to express in my work. My pots carry signs and symbols and tell stories about existence,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about origin and evolution.

My vessels are metaphors for human beings who relate to each other and interact.

My ceramic work is rich in contrasts :

- *light and dark*
- *thin and thick*
- *polished (burnished) and rough*
- *colourful and non-colour (white)*
- *opening and closing forms*
- *curved shapes and straight lines*
- *textured and smooth*

작가노트

고대 항아리들은 그 역사적 가치 때문에 중요하다. 발굴된 도자기들과 용기들로부터 고고학자들은 고대문화의 종교적 행사와 일상의 세세한 부분들을 추론해낸다. 이모든 고대 용기들은 전형적인 형태를 갖추며 우주적인 정신을 발산한다. 나는 이러한 정신세계를 내 작품 속에서 표출하고 싶다. 내 도자기들은 기원과 진화에 대한 존재, 관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많은 상징과 표상이 깃들어져 있다. 나의 작품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인류 자신을 상징한다.

나의 세라믹 작품은 밝음과 어두움, 가늘고 두꺼움, 거칠고 매끄러움, 단색과 화려한색, 개방된 형태와 닫힌 형태, 곡선과 직선 그리고 질감과 부드러움의 상반됨이 풍부하다.

Patty Wouters | 벨기에에 있는 Antwerp과 Hasseltt 미술학교에서 디자인과 도예를 전공하였고, 올해 이화여대 도예과 교환교수로 초빙되었다.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27번의 개인전.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 국제 도자비엔날레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여러차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NCECA conference, Chicago Art Insitute 등지에서 강연을 갖은 바 있다. 그녀는 도예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벨기에 문화부 지원 하에 운영되는 작업실을 겸비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갖춘 씨켈 도자 워크샵(Atelier Cirkel)이라는 미술학교를 운영하여 20여년간 참된 예술의 의미를 찾는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박성진 | 서울여자대학교 서양화, 뉴욕주립대 컴퓨터아트를 전공하였다. 뉴욕 버팔로 Bigorbit gallery에서 인턴, 뉴욕 롱아일랜드 잼 스톤 공방(S.J Lipkins Inc.)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통인옥션갤러리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